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에서 진안군은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향상' 등급(80점 이상)인 85점을 받았다.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향상'

진안군 85점 받아... 자율관리 2019년까지 가능해져

진안군의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가 2019년까지 2년간 더 가능하게 됐다.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에서 2년간(15~16년)의 수질개선 자율관리 추진실적을 서면·현지 평가한 결과 진안군은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향상' 등급(80점 이상)인 85점을 받았다.

전북도 주관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는 10명의 각 분야 전문가(환경전문가 3, 시민단체 2, 경영·통계·행정 전문가 각 1, 새만금지방환경청 1, 보건환경연구원 1)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1월 10일 진안군 현지점검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진행했다.

평가기준은 △수질관리기반 구축 및 적정관리 △지자체 수질환경개선 활동 △이해관계기관 수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수질관리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수질개선 성과 및 정책준수 5개 영역 27개 지표로 대부분 좋은 평

가를 받아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2년 더 가능하게 됐다.

진안군은 용담호 수질보호 정책을 군정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용담호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 △노후하수관거 정비 △인공습지 조성 △기후변화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추진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업의 확대 △쓰레기 3NO 운동 전개 △민간의 수질보전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조례', '가축사육 제한조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수립', '수질관리위원회 설립운영',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수질관리를 뒷받침해 왔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 '용담호 불관리 광역협의회', '강살리기 진안군네

트워크' 등 수질보전 활동단체를 주축으로 친환경 교육활동, 친환경제품 사용, 수질감시 활동, 하천정화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용담호는 민관이 합심한 노력으로 2002년 3.4ppm이었던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2016년 2.7ppm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항목인 TOC(총유기탄소량)는 지정기준인 2.0ppm 미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1a(매우 좋음)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주민참여형 수질관리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군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 구체화

인구 늘리기 대책보고회... 귀농·귀촌·여성일자리 지원 등 점검

무주군은 14일 이태현 부군수 주재로 인구 늘리기와 관련한 대책보고회를 갖고 '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무주군청 각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군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구 늘리기 대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귀농·귀촌을 비롯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여

성일자리 지원, △창업활성화 사업 등 분야별로 추진 중인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군수는 "일상적인 인구 늘리기 지원정책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며 "실현 가능한 대책과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선진시책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이날 보고회를 기반으로

'무주사랑 3만 패밀리 운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보고회 개최와 점검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완성해 간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의 12월 현재 인구는 2만 4,000여 명으로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고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 복지, 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지구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쌀로 든든하게 연탄으로 따뜻하게

무주군, 성품기탁 줄이어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에 동참하려는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연말 이웃사랑의 열기도 점점 더 온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주군 실천면이 고향으로 현재 대전에서 충청신문 대표직을 맡고 있는 0은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1톤(20kg, 50포대)을 기탁해왔다. 김충현 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쌀 기탁(1,700kg)을 통해 고향사랑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

김충현 사장은 "몸은 고향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 무주를 향해 있다"라며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그릇 나누고 살 수 있다는게 오히려 감사하고 타향에

서 살 힘이 된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무주군공무원노조(대표 백원준)에서도 연탄 2,300장(150만원 상당)을 난방연료로 전달해 왔다. 연탄은 무주군공무원노조들이 마음을 모은 것으로 추위에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원준 노조위원장은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무원들의 마음이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를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탁된 쌀과 연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개 읍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도 금연사업 평가 '우수' 선정

신규사업 추진 결과 금연클리닉실 등록자 수 31.3% 증가

장수군이 2017년 전북도 금연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2015년 담배값 인상 후 급격히 금연클리닉실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해 왔으나 2016년, 금연을 하려는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 추세로 돌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7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홍보사업 및 환경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7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재능나눔활동 참여자 180명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홍보사업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장수군의 대표 농축산물인 현우와 사과 캐리커를 활용한 금연캐

리터(4종, 아빠의 흡연, 간접흡연의 폐해)사업 ▲금연구역(청소년 흡연의 폐해)개발사업과 장수군자원봉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수의 기관과 협력 추진한 금연캠페인 전개 등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금연을 하려는 사람들 등록자 수가 31.3% 증가, 성과를 올렸다.

윤옥경 보건사업팀장은 "흡연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이 보건의료원 및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에 등록을 해서 금연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폐질환, 암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금연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읍 환경미화원 12명 이웃돕기성금 200만원 전달

진안군 진안읍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2명은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0kg을 모아 전춘성 읍장에게 전달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진안읍 쓰레기 3NO 운동의 주역으로 진안읍의 환경보호와 깨끗한 진안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또한 저소득가구에 대한 관심도 커 김윤경 반장을 주축으로 이번엔 한뼘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

전춘성 읍장은 "환경업무에 맡아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내 주어 개인적으로는 부끄럽기도 하면서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주천면, 클린하우스 지킴이 환경역량 강화 활동

진안군 주천면은 14일 양지마을 클린하우스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청정환경 만들기를 위한 클린하우스 환경역량 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 활동은 12개 마을 클린하우스 지킴이와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을 시연하고, 환경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클린하우스 운영 상황, 문제점 등 지킴이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클린하우스 지킴이는 주민 대상으로 쓰레기 3NO운동 홍보, 분리수거 지도, 클린하우스 주변 청결유지, 시설물 관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번 활동을 계기로 클린하우스 지킴이의 정기적인 환경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더욱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계공고서 청소년 통일 강연회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는 14일 장계공업고등학교 15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통일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통일 강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우리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선 유원주 강사는 북한의 실상인 '자유 없는 삶'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렸고 또한 남북 통일위즈 플레이를 병행하며 문화상품권도 전달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 소통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 등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는 호평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